

빠어난 주거 환경에 대형 개발호재는 ‘덤’

‘직주근접’ 우수한 대단지 아파트
부동산 미래가치 높아 이목 쏠려
생활인프라에 자연환경까지 탁월

충남 천안시의 ‘부동산 핫 플레이스’는 불당신도시다.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들어서며 불과 몇 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최근 천안에서 ‘뜨는 곳’은 동남구 청당동이다. 개발 완료된 청수행정타운과 청당지구 중심으로 용곡지구, 청룡지구 등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미래가치로 보면 오히려 불당신도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당동 핵심입지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롯데건설이 청당동 일원에 들어서는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의 기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천안에 처음 신규 분양하는 롯데캐슬 대단지 아파트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은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59~99㎡, 총 1199세대에 이른다. 청당동 일대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며 향후 풍부한 일지리를 품은 2만여 가구 규모의 천안 동남권 신중주거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핵심 입지가 돋보인다. 현재 청수행정타운 내에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천안세무서, 동천안우체국 등 행정기관이 이미 입주를 마친



롯데건설이 충남 천안시에 처음으로 롯데캐슬 대단지 아파트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을 신규 분양한다. 청당동 일대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 천안 대표 주거타운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의 투시도. 사진제공 | 롯데건설

상태다.

논산천안고속도로 남천안IC 진입이 수월해 인근 주요 도시는 물론 수도권 지역으로의 뛰어난 접근성을 갖췄으며, 남부대로와 천안대로를 통한 천안 전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경부선·지하철1호선이 지나는 천안역과 KTX·SRT 정차역인 천안아산역의 이용이 쉽고 향후 제2경부고속도로(예정)까지 개통될 경우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은 편리한 생활인프라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리는 빠어난 주거환경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 대형쇼핑시설이 있고 능수초(예정), 가은중, 청수고, 천안여고 등이 가

까워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청수호수공원, 청당2체육공원, 천안생활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도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

차별화된 설계도 눈에 띈다. 이 단지는 1199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프리미엄을 극대화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지상 주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북카페 등의 커뮤니티도 단지 내부에 들어서 입주민들의 수준 높은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

가구 내부설계도 우수하다. 단지는 중소형부터 중대형 평형까지 다양한 평면

구성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혔고 채광과 일조에 유리해 실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남향 위주로 대부분의 가구를 배치했다. 또 대부분 가구를 조망과 통풍에 유리한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은 물론 알파룸까지 제공해 공간 활용성도 극대화했다.

분양 일정은 9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7일 기타 지역 1순위 청약, 8일 2순위 청약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6일 이고 정당계약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품질 확보에 최우선” 고객 신뢰 쌓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계림 아이파크SK뷰 완성도 ↑
임주예정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업추진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광주 계림 아이파크SK뷰 임주예정협의회는 25일 HDC현대산업개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주예정협의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초 광주시의 공사중단 명령에도 이른 시일 안에 정밀안전 점검을 거쳐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지난날 입주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광주 최초 미디어아트인 미디어 파사드 등 차별화된 단지 특화로 지역사회와 랜드마크로 단지의 완성도를 높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일 광주 계림 아이파크SK뷰 임주예정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사진제공 | HDC현대산업개발

이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90% 가까운 신임을 얻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에도 조합과 꾸준히 협력하며 공사 재개

를 위해 노력해 지난 3월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될 수 있었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다음 주부터는 철거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학동4구역 조합원의 신임에 부응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수영장과 호텔급 커뮤니티 조성 등 단지특화도 적용할 계획이다.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 중이다. 5월 전 동 철거 및 리빌딩에 3700여 원의 투입을 결정한 HDC현대산업개발은 리빌딩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7월 6일부터 안정성이 우려되는 201동의 외벽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전체 철거 및 리빌딩을 위해 최적화된 공법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고객에 대해서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시공관리에 따른 품질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ESG 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안전과 품질경영으로 신뢰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두어 안전과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올해 모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보증기간을 30년으로 상향했다. 최근에는 국내 건축 구조공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서울대 박흥근 교수를 단장으로 시공혁신단을 출범해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레미콘 품질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김도현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1일(목) 음력: 8월 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웅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남
산기술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 연구, 문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나의 운기가 쇠해서 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호랑이가 뱀을 만나면 망신살이다. 오늘날을 내일로 미루어라.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하지만 잘못 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오늘은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달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망신날이다. 수익이 생겼다면 빨리 손을 떼고 그것을 지켜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로 하더라도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지나치게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장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서두르면 낭패본다. 기다려라.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부동산

스포츠동아 2022년 9월 1일 목요일 15



대전 용문동 장미아파트 투시도.

사진제공 | 쌍용건설

쌍용건설, 가로주택정비 새 강자

대전 장미아파트 정비사업 수주…750억 규모
작년부터 7개 단지 4500억 규모 시공권 확보

지난해부터 대도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공략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쌍용건설이 대전 용문동 장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따내며 이 분야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은 최근 대전 서구 용문동 592-12번지 일원에 위치한 252가구 규모의 장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약 750억 원.

이번 수주를 통해 쌍용건설은 가로주택정비분야에서 만 지난해 부산 태광맨션, 안양 삼덕진주, 부산 온천 제2공영, 서울 흥은동에 이어 올해 부산 월성맨션, 부산 온천 공작맨션과 이번 대전 용문동 장미아파트까지 총 7개 단지 약 1600가구, 약 4500억 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출혈경쟁이 치열한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입지 조건이 우수한 대도시 소규모 정비사업을 특화하겠다는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수주한 대전 용문동 장미아파트는 향후 지하 5층~지상 35층 2개 동, 총 252가구의 ‘더 플래티넘’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2025년 1월 착공 예정으로 조합원분은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176가구다.

주변에 대전 지하철 용문역과 롯데백화점 등이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들어서 조역세권에 위치해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쌍용건설이 2008년 9월 준공한 태평동 쌍용예가(태평주공 재건축) 이후 14년 만에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재진출한 것도 의미가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대전 및 충남권 내 도시정비사업 추가 수주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전 등에서 리모델링과 소규모 재건축을 적극 발빠르게 ‘더 플래티넘’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양대 축으로 공략 중인 리모델링에서도 지난해 광명 철산 한신(1803가구·4600억 원), 가락 쌍용1차(2373가구·8000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인천 부개주공3단지(1982가구·4700억 원), 문정현대 리모델링(183가구·500억 원) 등을 연이어 수주하는 등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과 같은 도시정비 분야에서만 전국에서 총 34개 단지 약 3만 가구, 약 4조9500억 원의 사업을 확보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1일(목)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20 30		20 28		17 29
강릉	30/0	대전	20/10	전주	20/0
	19 26		19 28		19 29
광주	0/20	대구	30/20	부산	30/30
	20 30		20 28		21 27
창원	30/30	제주	3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1 28		24 28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0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